

하나님은 나의 힘

하박국 3:17-19

들어가며

누군가 '진리를 찾고 있다면 결국에는 위로를 발견할 것이다. 그러나 위로를 찾고 있다면 결코 위로나 진리를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듯이, 진정한 위로는 '참된 진실'을 마주하였을 때 얻을 수 있습니다.

한 주간 혼돈과 무질서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 살면서 힘들지는 않으셨나요?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붙드는 신앙으로 하늘의 작은 위로라도 받으셨습니까? 한 주간의 삶을 나누어봅시다.

1. 3:17-19절은 '하박국의 노래'의 절정이자 마무리입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의문들이 있지만, 선지자는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 위에 서 있습니다. 아래 구절들을 살펴봅시다.

1.1. (관찰)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비전속에서 선지자가 맞닥뜨린 미래적 현실, 닥쳐오게 될 상황은 어떨습니까?

- 3:17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이 없으며 밭에 ()이 없으며 우리에 ()이 없으며 외양간에 ()가 없을지라도

1.2. (관찰) 땅이 소산들을 통해 열매들을 내지 못하고, 동물들이 우리에서 사라진다는 것은 일상의 삶이 큰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선지자의 태도는 어떨습니까?

- 3:18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

1.3. (나눔1) 우리는 간혹 혼란이나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현실도, 진실도 아닙니다. 혼돈과 무질서에게 위협을 당하는 것이 현실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주관자와 역사의 주관자가 약속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진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풍요나 안정, 값싼 위로가 아닙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는, '약속을 붙든 신앙'입니다. 서로가 처한 혼돈들(어려움의 고통들)을 나누어 봅시다. 더하여 혼돈 가운데 만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나누어 봅시다.

2. 선지자의 '감사의 찬양(기도)'은 계속됩니다. 특별히 19절에서는 혼돈의 상황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고백합니다. 아래 본문을 살펴봅시다.

2.1. (관찰) 선지자가 묵시 가운데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 3:19a 주 여호와와 ()이시라

2.2. (관찰) 마지막으로, 선지자는 모든 혼돈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된 자가 누리는 기쁨을 시적 은유로 표현합니다(시18:33 참조).

- 3:19b ...나의 발을 () 나를 나의 ()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2.3. (나눔2) 선지자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학대자로부터 고난 받을 필요가 없게 될 것임을 기대하며 노래합니다. 원천적인 희망을 발견한 자의 신앙고백인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이지만,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희망의 흔적들이 있지는 않을까요? 그래도 우리를 살게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희망의 흔적들이 있지 않을까요? 나누어 봅시다.

2.4. (나눔3) 하박국서를 마치며, 다함께 '모든 상황 속에서'를 불러봅시다.

㉞ 함께 기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혼돈의 세력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건져주시며, 다시 힘을 내어 또 하루를 정의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공급하여 주소서.